

‘육계 사육농가 = 하림의 제일 고객’ 하림, 우수 농가 인증 · 감사패 수여식 가져

“농가는 하림의 제일 고객입니다”
“하림의 사육농가임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날 이문용 대표이사는 32개 우수농가에게 인증패와 47개 농가에게 감사패, 2명의 지역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문성 1본부장이 인증농가 선정과 수익분석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2월 17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소재 코아리베라 호텔 백제홀에서 (주)하림(대표이사 사장 이문용)의 우수 사육농가 인증 및 감사패 수여식이 열렸다.

(주)하림은 1본부(본부장 정문성)의 주관으로 하림과 위탁 사육계약을 맺은 600여개 농가중 사육 성적이 뛰어난 농가들을 우수농가로 공식 인증하고, 아울러 10년 이상 회사와 인연을 유지해 온 농가들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우수 사육농가 인증’은 육계, 삼계, 시골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04~2005년 2년 동안 육계는 10회전 이상, 삼계는 8회전 이상 사육했으며, 평균 사육성적이 육성률 97%, 보정 사료 요구율 1.65, 생산지수 280으로 회사의 원가절감에 공헌도가 높은 상위 농가를 엄정하게 가려 하림에서 우수농가로 인증하는 것으로 이날 총 32개 농가가 우수사육농가로 인증을 받았다.

우수사육 농가로 인증받은 농가들은 휴지기간, 사육물량 등에 제약없이 무조건 연간 6회전 이상



행사를 주관한 1본부의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한 모습으로 농장주들은 맞이했고, 이날 참석한 농장주들은 부부동반으로 참석,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수농가 인증을 받은 농장주(좌)와 감사패를 받은 농장주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육기회가 부여되며, 낱플·환기·단열 등 시설 보수보완 자금 및 증개축 자금을 회사에서 지원 받게 된다.

한편, 우수사육농가로 인증 받지는 못했지만 10년 이상 하림과 계약사육을 계속해 온 47개 농가를 엄정하게 가려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농가의 사육성적 향상을 위해 필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지역소장 2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와 관련해 이문용 사장은 “사육농가야말로 제일의 고객”이라고 전제하면서 “2004년도부터 추진해온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위해 동참해주신 농가들에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우수농가로 인증받은 농장에 대해서

는 돈을 많이 벌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증패 수여에 이어서 정문성 1본부장은 이번 우수 사육농가 인증 선정 경위와 기준을 설명했으며, 아울러 앞으로 하림의 사육 경쟁력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어 농가들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날 인증패를 받은 이인화·정문성 농장주의 경영실적을 공개해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농장주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다. 이들 농가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으로 하림의 임직원들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하림사육농가협의회 송태희 회장은 “좋은 행사를 마련해준 회사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하림의 사육농가들이 전국의 어느 농가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림’이라는 최고의 브랜드가 유지되고 더욱 강해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초대받은 농장주들은 하림에서 마련한 뜻밖의 자리에 다소 놀란 모습이었으며, 일부 농가는 “하림이 우리를 진정한 고객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느껴진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행사는 하림의 오늘과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사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곳곳이 견뎌내며 품질 좋은 닭을 길러낸 사육농가와 농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익을 실현한 회사에게 모두 뜻깊은 자리였다.

하림은 매년 우수사육 농가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와 함께 성장해가는 하림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